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1.02.21 (통권336호)



## 경제이슈

美 생산자물가 7개월째 상승  
국내 수입물가 23개월만에 최고치

## 경영노트

분할과 헤징을 통한 공급망의 불확실성 해소

## 사회 트렌드

한국은 지금 추모중

## 저널 브리프

일본의 유망 소자본 창업 10가지

## 洗心錄

오늘의 평범은 내일의 특별

□ 美 생산자물가 7개월째 상승

- 미국 노동부(16일)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0.8% 상승하며 2010년 7월 이후 7개월째 연속 상승
  - PPI 변화 추이 :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하였으며, 2010년 7월 이후 월평균 0.6% 상승률 기록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 식품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8%의 상승폭을 보임
  - 근원 PPI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상승률 기록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함께 생산자물가의 상승으로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증대

□ 국내 수입물가 23개월만에 최고치

- 2011년 1월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이 원유와 농림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4.1% 올라 2009년 2월 이후 최대폭 상승
  - 원자재 : 광산품이 원유, 철광석을 중심으로 22.9% 상승, 농림수산물인 밀,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35.5%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4.2% 급등
  - 중간재 :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급등하여 전년동월대비 10.8%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 자본재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소비재는 비내구재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소폭 상승
  
- 수입물가 상승은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므로 향후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는 추가금리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

□ 분할과 헤징을 통한 공급망의 불확실성 해소<sup>1)</sup>

-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사실 이는 장기적 문제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임
  - 많은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흥국가의 저가 공급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특히 글로벌 경영위기 이후 신흥국가와 기존 선진국 간의 시장 매력도가 뒤바뀌는 장기 변화에 따라 갈수록 그 한계는 커지고 있음
- 많은 경영진들이 공급망 리스크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의 주요 원인은 신흥국들의 불확실성 및 수요의 복잡성 증대 등에 있음
  - 2010년 전세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68%가 향후 5년 간 공급망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원자재의 주요 공급 지역이었던 신흥국의 임금 인상과 신흥국 자체의 원자재 소비 급증은 공급망 자산의 재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소비자의 수요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품목의 다양화 역시 생산 및 공급망 전략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한 단일 공급망의 분할과 공급망 자체를 이용한 헤징 등이 방향이 될 수 있음

<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구축 >

내 용	
공급망의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등 신흥국에 위치한 하나의 공급망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면 복잡성 정도에 따른 다수 지역으로의 분할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li> <li>• 기존의 신흥국 공급망은 수요의 장기 예측에 따른 공급량에 대응하는 대신 선진국 공급망은 상대적으로 양은 적고 변동성이 큰 수요에 대응 가능함</li> <li>• 각 수요의 변동성 대응 역할에 따른 공급망 분리는 관리의 가시성 제고와 함께 불확실성의 감소, 수요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의 장점이 있음</li> </ul>
공급망을 이용한 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분할은 각 공급 국가 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차이에 따라 공급 및 생산의 비중을 변화시키는 리스크 헤징이 가능함</li> <li>• 이는 당장의 수익 증가보다는 미래의 공급망 민첩성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가정에 따른 수익성 증가 및 생존 능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li> <li>• 또한 각 국가별로 임금, 관세, 유희 생산 능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노사분규, 자연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빠른 대응 역시 가능함</li> </ul>

1) 본 자료는 'Building the supply chain of future(McKinsey Quarterly, 2011. 1)'를 요약 정리함

□ 한국은 지금 추모중<sup>2)</sup>

- ‘죽음 기억하기’가 우리 사회에 크게 번지고 있음
  -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예술에서 주로 인생의 유한성을 통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일깨워주는 코드를 설명하는 데 쓰임
  - 우리에게서 삶에 대한 강한 집착,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죽음 기억하기’도 있음
  
- 즉 산 자에게 두려움이나 혐오, 경각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죽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
  -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에서 의료봉사와 선교사로 살다 간 이태석 신부를 다룬 영화 ‘울지 마 톤즈’가 조용한 흥행몰이를 하며 4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상업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로서는 이례적임
  -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재조명하는 물결도 선종(善終) 2주기를 맞아 거셴. 그의 삶은 연화와 연극으로 재생되며 많은 이에게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의 표상으로 여전히 큰 울림을 줌
  - 고 김광석의 15주기 추모 열기도 뜨거움. 영혼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요즘 판에 박은 가사와 현란한 몸짓으로 음악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세대에 대한 반작용임
  - 서민들의 애환을 특별한 유머로 들려준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들은 낭독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
  - 이달 말로 입적 1주기를 맞는, 우리 사회 무소유 열풍을 일으킨 법정스님이 기거했던 불일암, 길상사 등에는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변치 않을 가치를 지닌,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적은 상황에서 몇 남지 않은 분들이 하나둘 서거함에 따라 그간 우리 사회에 부족했으나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신을 기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사회 아픔과 상처들이 고일들에 투사돼 자기치유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2) “한국은 지금 추모중”(헤럴드경제 2011.2.18) 참조

□ 일본의 유망 소자본 창업 10가지<sup>3)</sup>

■ 장기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로 평생 직장을 위협받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노인·저가·리사이클을 앞세운 소자본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음

- ① **저가 균일 선물집:** 주머니가 얇아진 샐러리맨을 겨냥하여 주류와 안주를 300엔 이하로 설정한 저가 균일 선물집이 인기를 끌고 있음
- ② **가정 개호 서비스:**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의 주거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개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③ **매입 사업:**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현금화 하려는 일반 가정이 늘면서 귀금속은 물론 브랜드 제품과 수집품 등을 사들여 전문 중간상에 되파는 전당포 사업이 활황임
- ④ **위생·클리닝:** 심화된 고령화와 활발해진 맞벌이,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환경적 변화를 배경으로 생활공간 위생·클리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⑤ **학원 프랜차이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학원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중학교 학원시장이 급증하면서 동네 곳곳을 파고드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학원이 확산되고 있음
- ⑥ **노인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힘든 고령 가구에게 전용 도시락을 개발해 배달하는 창업 시장도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⑦ **우동·라면:** 보편적인 외식 품목인 우동·라면 사업은 언제나 인기 만점의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음
- ⑧ **휴대전화 판매·치장:**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꾸며주는 사업으로, 업무량은 적은 반면 수익원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⑨ **중고품 매장:** 경기 침체와 환경보호가 맞물려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고 물품 판매 또는 물품 대여 사업이 부상하고 있음
- ⑩ **편의점:** 일본의 편의점 숫자가 5만 개를 넘어서는 등, 편의점은 창업계의 스테디셀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3) '실버·리사이클·저가형 비즈니스 뜬다'(한경Business, 2011.2.2) 참조

□ 오늘의 평범은 내일의 특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서있는 바로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라고 말들은 하면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힘든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혹은 재미있는 일이 없나 오늘은 왜 이리 따분한 일만 벌어지나 하고 답답해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오늘의 일들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전력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몇 차례 최선을 다하다가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센린의 <다 지나간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왕에게는 왕만의  
‘옛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네 보통 사람들에게는  
또 보통 사람만의 ‘옛날’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생활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현재’도 몇 년이 지나면  
‘옛날’이 될 것이니,  
그때 가서 또 지금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오늘은 내일이 되면(즉,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옛날’이라는 과거의 단계로 특징지어진다. 오늘이라는 ‘현재’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이 되어버린 오늘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워한다.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인간의 특징도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한 고마움은 미래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의 일상적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미래가 다시 오늘이 되면 역시 모든 평범해 보이는 일들도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같다.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 헤르만 헤세(1877~1962) : 독일의 작가